

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



(나를 건강하게 키우는 마음)

이름	이호빈
전공	행정학과
학번	20240309
참여 프로그램	글말특강 (1회차)

우연히 자신있게 말하기 수업을 통해 글말 특강 1회차 - 마음이 통하는 말하기 강의를 듣게 되었다 . 원래 나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이제까지 그저 말을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, 대학에 와서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,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조금씩 만날 수 있게 되었다 . 그러면서 나는 나의 대화방식에 대해 돌아보고 , 진정 대화를 ‘잘’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. 그런데 그 와중 마음이 통하는 말하기 강의를 듣게 되었고 , 이 강의에서 말해주는 8개의 소통 방법이 내가 좀 더 말을 그저 ‘ 잘 ’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, ‘정확히’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 같은 역할이 되어주었다 . 8가지 방법 모두 인상 깊었지만 그 중 가장 내가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은 바로 “ 오해없이 소통하기 ” 였다 . 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,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에는 꽤나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, 그 이후에 친해져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소통에 오해가 생겨 감정이 상하거나 ,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타인이 미워지는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다 . 그런경험을 거치다보니 , 자연스레 타인의 말에 대한 의도를 완벽히 이해 하는 것이 꽤나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.

그러나 강의를 들으며 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**한번 더**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, 있는 그대로 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. 그래서 앞으로 타인과 대화할 때 나도 내 의도에 맞게 잘 전달을 하고 있는지 , 혹여나 타인의 발언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 속의 의도는 무엇이였을지 한번 더 생각해보자고 다짐했다 . 그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“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선하게 바라보면 ‘나의 선함’ 이 유지된다 . ”라는 강의 부분이다 .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,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,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. 즉 완벽한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. 이와 비슷하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기도 , 별로인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다시 느꼈다 . 언젠가 내 주변 사람이 매우 밍게 보이고 ,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. 근데 그렇게 한번 그 사람을 밍다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싫어지고 또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. 강의 내용과 함께, 나의 경험을 빚대어 보았을 때 , 이렇게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나 자신 또한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. 또한 “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사연이 있겠지 ” 하며 더이상 단점만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**나의 선함도 유지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**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.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, 보다 나를 선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결국 나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진리이자 나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.

위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말하기 스킬을 배우는 것도 매우 좋았지만 , 내가 여태 가지고 있던 고민들과 , 나의 말하기 습관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내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,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사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 . 결국 더 나은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께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, 사랑하며 또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.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. 나의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말하기와 대화 , 그리고 소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.